

2026.5.22-7.19 ARKO Art Center
소리와의 시간이며 모든 자리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전시연계 프로그램

소리와 시간이 머문 자리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2026.5.22-7.19 ARKO Art Center

어긋난 파동, 흔들리는 시간: 오민, 카밀 노먼트
Untuned Time: Camille Norment, Min Oh
2026.5.22-7.19 ARKO Art Center, Min Oh

글, 기호, 그림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머문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머문 것은 가족과 꽃씨,
 약간의 여유.
 경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에
 연민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머문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가장 먼저 떠오른 소리 하나 가장 오래 남은 감각 하나.
 가장 그리고 싶은 장면 하나를 남겨주세요
 얼마만인지 찾아온 대학로를 바라본 시각.
 지금 침묵 속에 집중하는 시간.

(Handwritten signature)

오늘 당신에게 머문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머문 것은 가족과 꽃씨,
 약간의 여유.
 경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에
 연민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머문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가장 먼저 떠오른 소리 하나 가장 오래 남은 감각 하나.
 가장 그리고 싶은 장면 하나를 남겨주세요
 얼마만인지 찾아온 대학로를 바라본 시각.
 지금 침묵 속에 집중하는 시간.

(Handwritten signature)











